6 알록큰봉의꼬리

Pteris nipponica W.C. Shieh

봉의꼬리과 Pteridaceae

물 주기	햇빛 요건	토양 요건	독성
주 2~3회	그늘진 곳	잘 배수된 흙 약간 산성 토양	사람에게 유독함

국내 분포

• 제주도의 숲속에서 자람

수형

• 상록성 지생 양치식물로 키 20~50cm 정도로 자람

특징

• 잎은 깃털 모양의 겹잎으로, 전체적으로 좁고 가는 형태다. 잎 중앙에 흰색 무늬가 나타난다. 포자가 생산되는 주머니는 잎 뒷면 가장자리를 따라 길게 붙는다.

초미세먼지(PM 2.5) 제거능

'20년도 실험 결과

• 스킨답서스 77%, 알록큰봉의꼬리 74%로, 초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.

※ 실험 시기에 따라 다소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실내 관리

• 약간 그늘지거나 완전히 그늘지는 곳에 두고 가꾼다. 주간에 인공조명이 켜진 실내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며, 식물생장등을 켜주면 생장에 도움이 된다.

• 물은 주 2~3회 간격으로 주되, 계절별로 횟수를 줄이거나 늘인다. 생육환경이 건조할 경우, 분무를 자주 하면 잎끝 마름 방지에 도움이 된다.

• 특별한 병충해는 없으나 간혹 식물 분양 전부터 기생하던 깍지벌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 전 깍지벌레가 없는지 잘 살펴보며, 깍지벌레가 발생하면 가정용 깍지벌레 방제약을 사용한다.

증식

주로 영양생식으로 증식한다.

• 봄~초여름 경, 뿌리줄기를 화분으로부터 꺼내고, 생장점이 포함된 부위를 중심으로 좌우로 절단한 후,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 심고 습도를 유지하면 수 주 내에 뿌리가 나 독립된 개체로 자란다.

작성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